



글로벌 전환시대 신남방정책 관점 대외경제협력 전략: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정책학회 학술포럼

안재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20. 12. 3



경제협력 측면에서의 신남방정책

□ 신남방정책과 해외직접투자

- 신남방정책의 핵심 축으로서의 “경제협력 기반구축”
- 단순 물류교역을 넘어 현지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주요 정책방향



0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아세안 역내 추진중인 지역 및 다자·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

08.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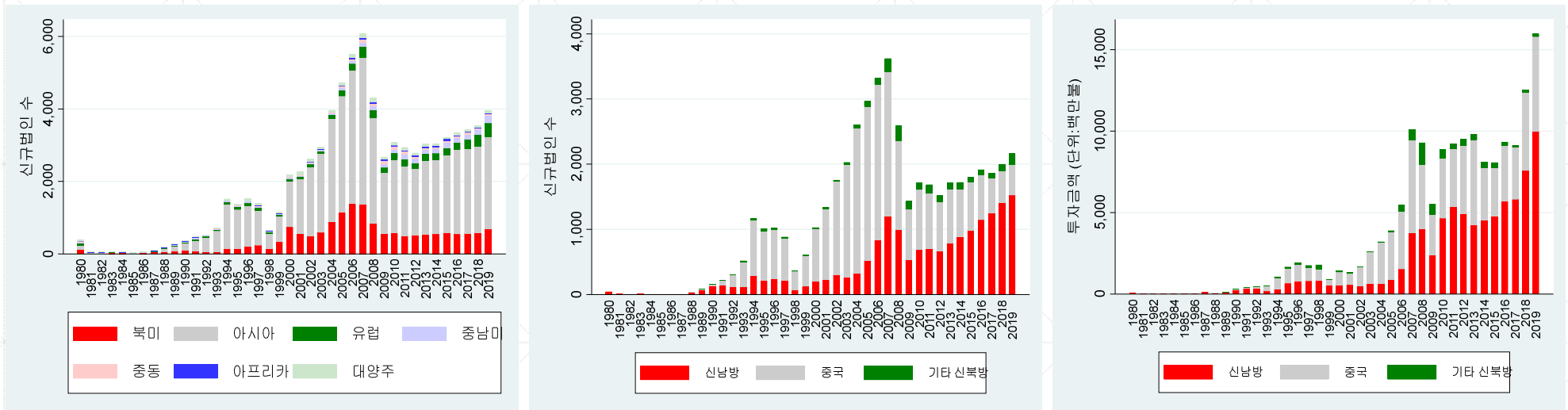
09.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K-Food, 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간 4차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

11.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각 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

지역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현황

□ 지역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신규법인 수,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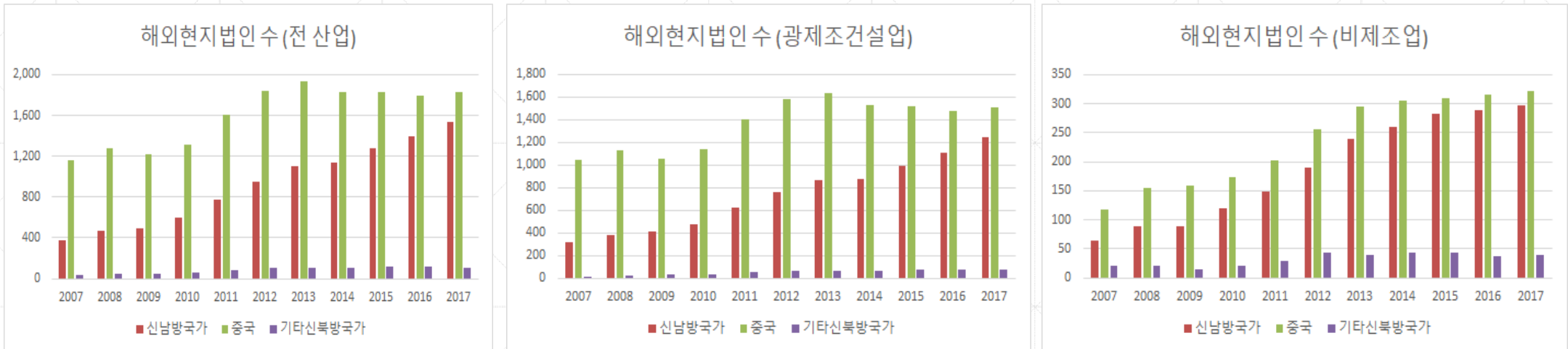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지역별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좌); 신북방·남방 지역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중); 신북방·남방 지역 해외직접투자금액 (우)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신규진출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
- 아시아 지역 해외진출은 중국 중심에서 신남방 지역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
 - 신규법인 수 및 투자금액 수 기준

지역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현황



□ 지역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전체 현지법인 수)



자료: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수준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지역별 전체 현지법인 수 (좌); 지역별 광제조건설업 현지법인 수 (중); 지역별 기타산업 현지법인 수 (우)

- 현지법인 수준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 법인을 포함 전체 현지법인 수 파악
 - 통계자료의 표본 포함여부 기준이 변경되어 표본크기가 증가하는 경향 감안할 필요
- 광제조건설업 및 기타산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신남방국가지역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중국지역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



지역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격 분석

A: 북미지역 (2007)						A: 북미지역 (2017)						
전 부문		기타산업		관계조건설업		전 부문		기타산업		관계조건설업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비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77	1.00	0.78	1.00	0.74	1.00	비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80	1.00	0.78	1.00	
비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69	1.00	0.70	1.00	0.67	1.00	비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74	1.00	0.72	1.00	
비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2	0.00	0.01	0.00	0.02	0.00	비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2	0.00	0.02	0.00	
비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6	0.00	0.07	0.00	0.05	0.00	비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4	0.00	0.04	0.00	
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23	0.00	0.22	0.00	0.26	0.00	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20	0.00	0.22	0.00	
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17	0.00	0.16	0.00	0.20	0.00	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14	0.00	0.15	0.00	
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6	0.00	0.06	0.00	0.05	0.00	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6	0.00	0.06	0.00	
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1	0.00	0.00	0.00	0.01	0.00	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1	0.00	0.00	0.00	
관측치	297		183		114		관측치	757		467		290

B: 신남방 국가 (2007)						B: 신남방 국가 (2017)						
전 부문		기타산업		관계조건설업		전 부문		기타산업		관계조건설업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비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59	0.86	0.57	0.91	0.59	0.86	비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61	0.95	0.77	1.00	
비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40	0.09	0.47	0.21	0.39	0.07	비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50	0.50	0.67	1.00	
비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4	0.00	0.04	0.00	0.04	0.00	비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3	0.00	0.01	0.00	
비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14	0.00	0.05	0.00	0.16	0.00	비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8	0.00	0.09	0.00	
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41	0.14	0.43	0.09	0.41	0.14	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39	0.05	0.23	0.00	
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15	0.00	0.31	0.00	0.11	0.00	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11	0.00	0.11	0.00	
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22	0.00	0.12	0.00	0.24	0.00	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25	0.00	0.09	0.00	
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5	0.00	0.00	0.00	0.05	0.00	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3	0.00	0.03	0.00	
관측치	379		65		314		관측치	1,540		298		1,242

C: 중국 (2007)						C: 중국 (2017)						
전 부문		기타산업		관계조건설업		전 부문		기타산업		관계조건설업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비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54	0.67	0.66	1.00	0.53	0.61	비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69	0.98	0.76	1.00	
비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45	0.31	0.62	1.00	0.44	0.26	비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63	0.90	0.72	1.00	
비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2	0.00	0.01	0.00	0.03	0.00	비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1	0.00	0.02	0.00	
비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7	0.00	0.03	0.00	0.07	0.00	비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4	0.00	0.02	0.00	
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46	0.33	0.34	0.00	0.47	0.39	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31	0.02	0.24	0.00	
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15	0.00	0.17	0.00	0.15	0.00	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12	0.00	0.14	0.00	
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28	0.01	0.17	0.00	0.29	0.02	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17	0.00	0.09	0.00	
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3	0.00	0.01	0.00	0.03	0.00	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1	0.00	0.01	0.00	
관측치	1,166		118		1,048		관측치	1,830		322		1,508

D: 기타신북방국가 (2007)						D: 기타신북방국가 (2017)						
전 부문		기타산업		관계조건설업		전 부문		기타산업		관계조건설업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비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77	1.00	0.81	1.00	0.72	1.00	비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82	1.00	0.89	1.00	
비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74	1.00	0.79	1.00	0.67	0.95	비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79	1.00	0.86	1.00	
비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0	0.00	0.00	0.00	0.00	0.00	비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0	0.00	0.00	0.00	
비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4	0.00	0.03	0.00	0.05	0.00	비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3	0.00	0.03	0.00	
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23	0.00	0.19	0.00	0.28	0.00	관계회사 매출 (전체) 비중	0.18	0.00	0.11	0.00	
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15	0.00	0.15	0.00	0.15	0.00	관계회사 매출 (현지) 비중	0.11	0.00	0.06	0.00	
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8	0.00	0.04	0.00	0.13	0.00	관계회사 매출 (한국) 비중	0.06	0.00	0.05	0.00	
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0	0.00	0.00	0.00	0.00	0.00	관계회사 매출 (제3국) 비중	0.02	0.00	0.00	0.00	
관측치	34		20		14		관측치	112		40		72

자료: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수준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지역별 현지법인 매출형태, 2007 (좌); 지역별 현지법인 매출형태, 2017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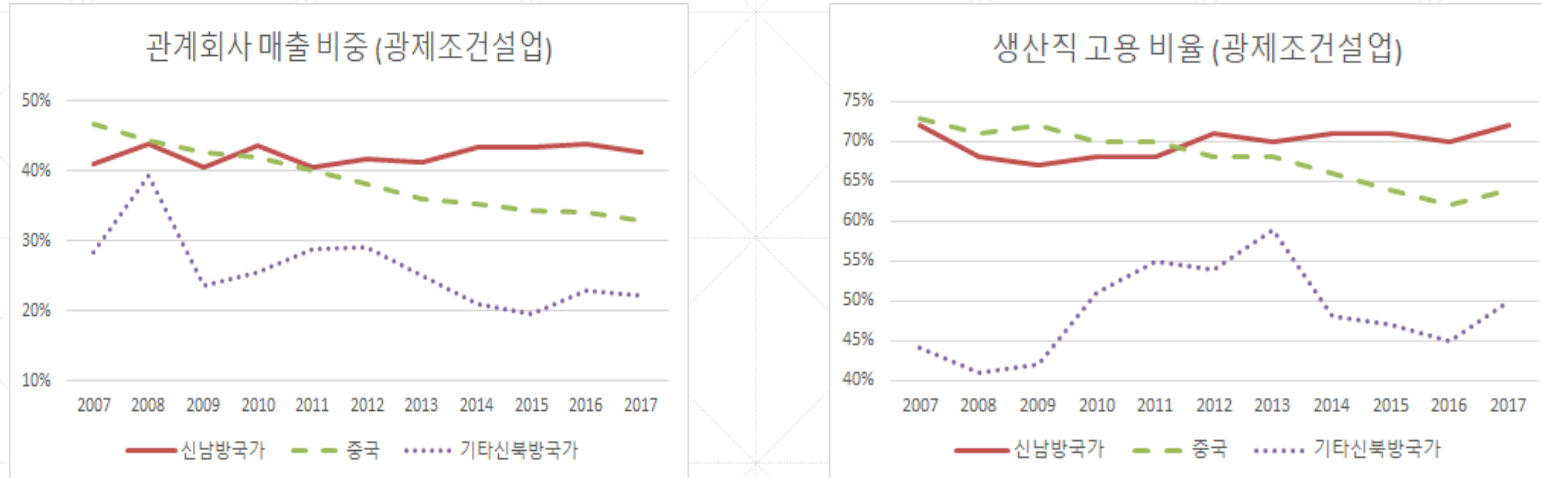
□ 해외직접투자 성격 (제조업부문)

-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 기존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후 해외 현지로 직접 수출을 통해 판매하던 것을 운송비, 관세 등 교역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에서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 및 국내 일자리 창출과 대체적인 관계
 - 비관계회사 판매 비중이 높을 것
-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 해외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모기업 및 관계회사의 최종재 생산을 위해 필요한 중간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수출 및 국내 일자리 창출과 보완적인 관계
 - 관계회사 판매 비중이 높을 것



지역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격 분석

□ 지역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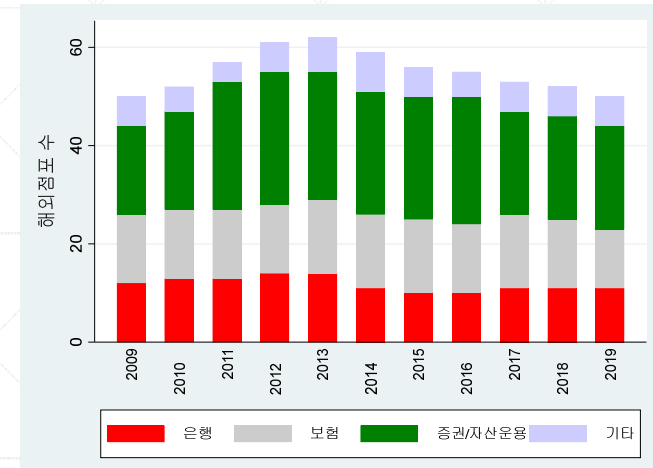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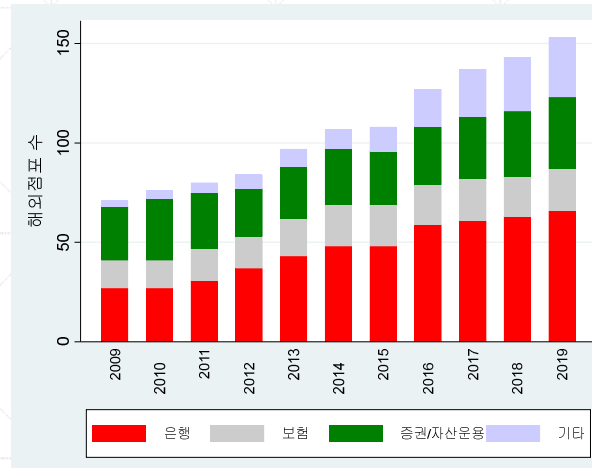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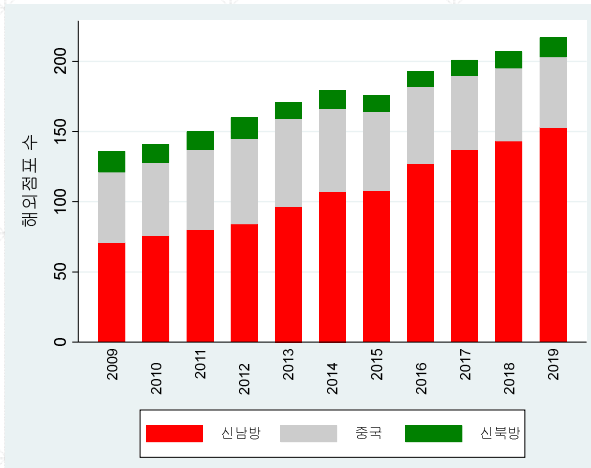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수준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지역별 평균 관계회사 매출 비중 (좌); 지역별 평균 생산직 고용 비중 (우)

- 중국지역 현지법인의 평균 관계회사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신남방지역 평균 관계회사 매출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
 - 중국지역 해외직접투자가 수직적 FDI에서 수평적 FDI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
- 중국지역 현지법인의 생산직 고용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현지판매를 위한 수평적 FDI의 경우 현지 영업직 고용 비중이 높을 것

지역별 국내금융부문의 해외진출 현황

□ 지역별/업종별 국내금융부문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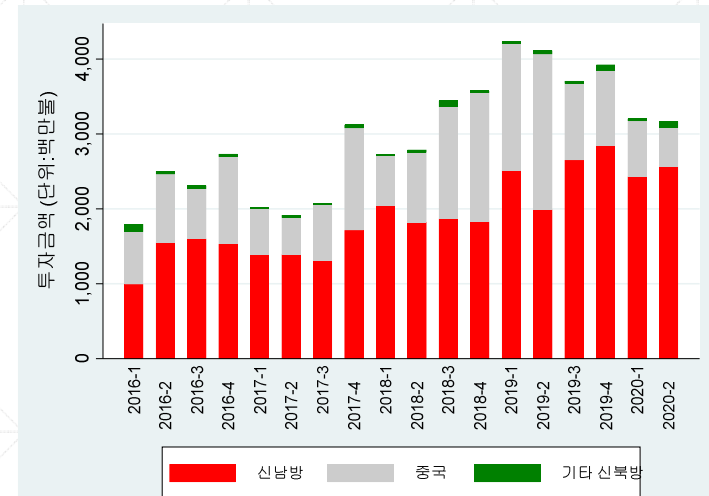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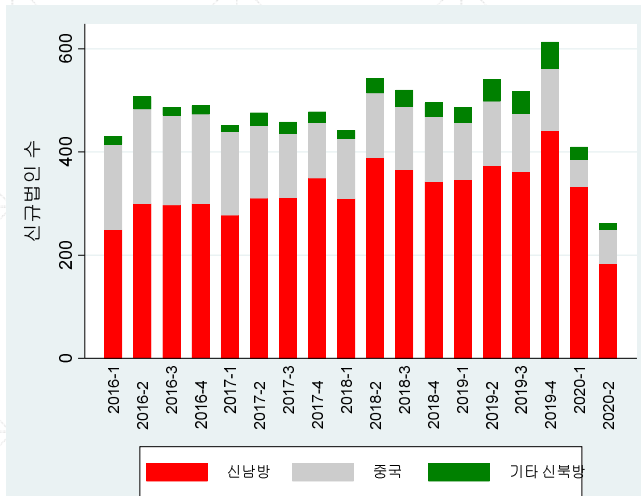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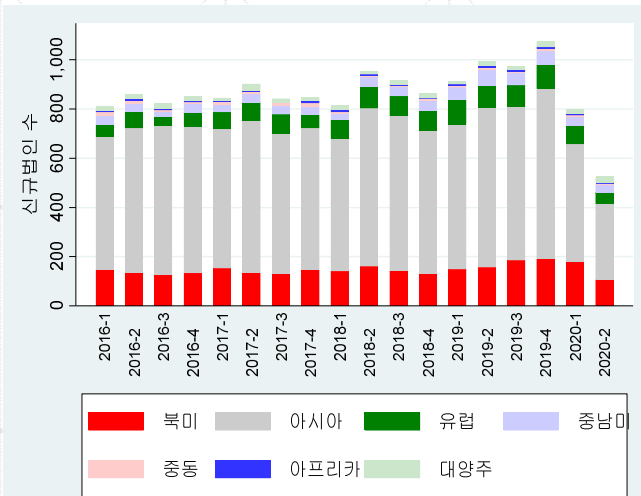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지역별 국내금융부문 해외점포 수 (좌); 신남방지역 업종별 해외점포 수 (중); 중국지역 업종별 해외점포 수 (우)

- 금융부문의 경우, 중국보다 신남방지역으로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한 상황
 - 해외점포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법인 뿐만 아니라 해외지점도 포함하고 있음
- 신남방지역의 경우 은행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진행
- 중국지역은 증권/자산운용업 진출이 더욱 활발

코로나19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 코로나19 사태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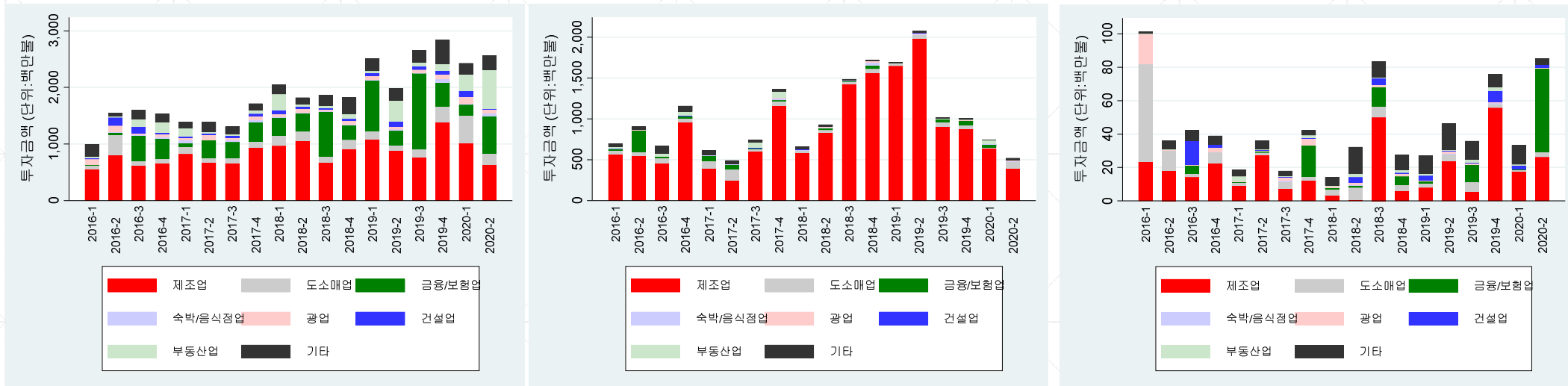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지역별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좌); 신남방·남방 지역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중); 중국지역 업종별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우)

- 2020년 2분기까지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지역, 그 중에서도 중국 및 신남방지역으로의 신규법인 진출 수가 비교적 급격히 감소
-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신남방지역 투자는 견고
- 평가를 내리긴 아직 이르지만 신남방지역의 해외직접투자가 위기에 보다 견고한 양상



코로나19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 코로나19 사태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신남방지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 (좌); 중국지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 (중); 신북방지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 (우)

- 신남방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중국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의 신남방 정책 향후 과제



-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장려 및 지원 정책은 리쇼어링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
 -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의 필요성
 - 국내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대체적 혹은 보완적인 관계 갖는 FDI 성격 파악 필요
 - 향후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의 연관관계 고려 필요
- **국내 금융부문의 해외 법인 및 점포 진출 장려 및 지원 정책**
 - 해외진출 현지법인들의 금융 수요 (financing need) 충족 역할
 - 증대된 글로벌 유동성을 해외에서 흡수하여 운용하는 전략을 통해 국내 거시건정성 향상
- **신남방지역 내 특정국가 집중도 해소 필요**
 - 중국집중도를 낮추고 해외직접투자 다각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신남방정책
 - 현실적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등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역내 해외직접투자 다각화 필요
 - 캄보디아, 미얀마 등으로의 수직적 FDI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충분한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의 수평적 FDI 진출을 위한 정책 협조